2022년
3월 15일
제 70 호

mbc 사우회보
mbcsau.com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 발행처: (사)문화방송사우회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 TEL: 02-722-7416 ●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장명호 ● 편집장: 김상옥

새 사우회장 장명호(편제)회원 선임
사무처장 류근종(관리)회원

사우회는 2월 28일 정기총회를 열어 예·결산심의 의결에 이어 이사회에서 추천한 장명호(편제)회원을 차기 사우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장명호 회장은 각 부문에서 추천한 부회장, 이사들과 사무처장의 명단을 발표하고 총회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사우회에 기여한 업적이 큰 다섯 회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신임 장명호 회장은 1968년 PD로 입사해 제작과 편성 책임자를 거쳐 인사부장, 총무국장, 관리이사, 감사, 애드컴 사장, 아리랑TV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사우회 설립 당시 본사 총무국장으로서 사우회의 기초를 닦는데 도움을 준 인연도 있다.(2면에 계속)

22년도 이사회, 예·결산안 심의와 차기 임원진 추천

2022년도 첫 번째 이사회가 1월 27일 오전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21명의 임원 중 18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결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차기 사우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토의도 있었다.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각 부문에서 추천된 후보에 대한 임원들의 토의 결과 전 MBC애드컴 사장을 역임한 장명호(편제) 회원을 차기 사우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2월 3일 비대면으로 속개된 이사회에서 장명호 후보는 차기 사우회를 이끌어갈 임원진과 상근부회장 및 사무처장 후보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동의를 요청했으며 이사회는 원안에 대해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우회를 이끌어 갈 새 임원진

▶감 사: 한윤희(관리), 손목헌(기술)
▶부회장: 김상옥(편제.상임), 양영철(보도), 정연호(ANN), 최 천(기술), 한귀현(업무), 조승필(관리)
▶이 사: 장덕수 김승월(편제), 이재은 차경호(보도), 조일수 권혁화(ANN), 박진석 천복용(기술), 조성식 신명현(업무), 신승철 임무혁(관리)
▶사무처장: 류근종(관리)

한윤희

손목헌

김상옥

양영철

정연호

최 천

한귀현

조승필

장덕수

김승월

이재은

차경호

조일수

권혁화

박진석

천복용

조성식

신명현

신승철

임무혁

류근종

Derchaeum
건강을 채우다 더채움

프리미엄 견과의 차별화된 기준 제시

✔ 25g을 하루한줌으로 정의
✔ 특허받은 저온로스팅 가공 기술
✔ 세계 최대 견과류 전문기업 '미국 파라마운트팜즈社' 와 기술제휴
✔ 코스트코 입점 제품, 쿠팡 PB OEM 생산
✔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

www.더채움.com
고객센터1644-3325

〈취임사〉

소통과 교류의 구심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MBC사우회원 여러분

지난 2년은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을 맞아 그동안 유지해온 삶의 패턴이 흐트러져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을 되찾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MBC사우회는 회원들 간 서로 도우며 건강하게 친목을 다지자는 목적으로 탄생됐습니다. 우리는 MBC라는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정을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MBC 61년, 사우회 32년은 함께 해왔습니다. MBC가 박수 받을 때 사우회도 더불어 성장했고 MBC가 어려울 때 사우회도 함께 힘들었습니다. MBC는 늘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방송계를 리드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은 MBC를 떠난 선배들에게는 더욱 강렬하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방송 환경은 매우 혼란스럽고 MBC 또한 혼탁한 환경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고향인 MBC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또한 "MBC First"라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생활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방송 사우회 32년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일군 역사입니다. 역대 회장, 임원진, 그리고 조용히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MBC사우회는 회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구심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화방송 사우회 회장 장명호

發展 기금을 내주신 분들(1월 10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故양경운(기술) 27만원
- 정태식(기술) 20만원
- 김옥균(편제) 20만원
- 김관영(편제) 20만원
- 송창의(편제) 10만원
- 인형식(업무) 10만원
- 박영태(기술) 10만원
- 김재홍(관리) 10만원
- 정 진(보도) 10만원
- 김종수(편제) 10만원

故양경운

정태식

김옥균

김관영

송창의

인형식

박영태

김재홍

정 진

김종수

회/원/동/정

▶김상진(보도)

2월 25일 BJC(한국방송기자클럽) 감사에 선임됐다. 김 회원은 MBC C&I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나사렛대학교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정훈(보도)

2월 18일 ㈔한국체육언론인회(KSJA) 회장에 선출됐다. 서 회원은 스포츠국장, 여수 MBC 사장을 역임했고 한국체육기자연맹(KSPU)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송일준(편제)

1월 27일『송일준의 나주수첩』Ⅰ, Ⅱ권을 출간했다. 고향인 전남 나주의 명물, 유적, 특이한 카페 등 외지인들을 위해 나주를 자세하게 소개한 책이다.

百歲를 맞은 노서을 고문 등 공로패 받아

2월 28일 오전, 사우회 건물 1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사우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공증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고창근(ANN)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방역 관계상 제한된 인원(64명)만 참석하고 정족수 충족에 필요한 나머지 인원은 위임장(371명)으로 대체했다.

이석일 사무처장의 성원보고, 차인태 회장의 개회선언, 국민의례, 앞서 가신 방송인에 대한 추모묵념, 사가 제창, 감사보고, 의안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차인태 회장은 사우회 발전에 공이 큰 다섯 명의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로패를 전달 받은 회원은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후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올해 100세를 맞은 노서을(기술) 고문, 현업에 있으면서 창립을 도왔고 업무부문 이사와 부회장으로 봉사한 이용구 회원, 사우회 총무이사와 기술부문 부회장을 역임한 박종규 회원, 관리부문 이사, 부회장을 역임한 신견옥 회원, 3년간 사무처장으로 봉사한 이석일(보도) 회원 등이다.

의안심의에서는 먼저 2021년도 결산 내용에 대한 김상옥 상임부회장의 설명이 있었고 회원들의 승인,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회원들의 승인을 각각 얻었다.

제3 의안으로 차기 사우회를 이끌어갈 사우회장 선출이 있었으며, 사우회장이 요청한 차기 임원진과 상임부회장 및 사무처장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차기 사우회장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장명호(편제) 회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사무처장에는 류근종(관리) 회원이 선출됐다.

사무처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위임장을 보내준 회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위임장을 보낸 회원에게는 우송)했다.

경조사항

구순: 김성기(기술) 33.4.11 이임생(편제) 33.4.15

팔순: 인형식(업무) 43.4.5 김종성(계열) 43.4.7
김정용(편제) 43.4.15 김정환(편제) 43.4.24
남기두(계열) 43.5.3 정석진(보도) 43.5.30
진수웅(기술) 43.5.30

고희: 이상길(관리) 53.4.3 윤종선(기술) 53.4.9
윤재복(관리) 53.5.2 홍 성(편제) 53.5.4
조항민(보도) 53.5.28

결혼: 서경주(편제) 아들 2.5 전인하(보도) 아들 2.13
윤광중(관리) 딸 2.19 나종석(보도) 딸 2.27
이성호(편제) 딸 3.26 하동근(보도) 딸 3.27

부음: 김호경(편제) 부친상 1.7 최종수(편제) 모친상 1.14
전종건(관리) 장모상 1.23 우윤근(고문) 배우자상 2.2
고재규(보도) 장인상 2.3 오태돈(보도) 시부상 2.5
김영석(기술) 부친상 2.6 박영민(보도) 장모상 2.10
박흥영(편제) 모친상 2.17 조미숙(관리) 모친상 2.18
지덕환(관리) 장인상 2.22 김재천(관리) 부친상 2.28
유승재(관리) 모친상 3.7

연회비

평생회비 : 신석화

2021년 : 강효복 정갑표 조미숙 유승재

2022년 : 강복주 강현식 고춘호 권혁화 김광민 김병문 김상옥
김선희 김정명 김종수 김종오 김철영 김채영 나명수
남궁미 노영인 박광성 박민정 박종순 박종완 박찬순
박화진 반주원 백명순 서은선 서정호 안종순 안주희
엄기원 염영수 오명환 이대교 이명순 이상근 이상림
이성호 이인숙 이종숙 이하걸 인형식 정명환 정명모
정봉일 정영웅 정영희 조춘희 최우철 최운형 최화숙
표찬일 홍신숙 홍이표

2023년 : 김우중 박한성 심준보 전용수 최영식 최종수

2024년 : 지덕환 2026년 : 김명수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 김태인 서울 은평구 은평로13길 29-1(녹번동)
이영일 편제 서울 은평구 진관2로 60(은평뉴타운 마고정)
박종덕 경기 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203(자연리)

보도 : 김광백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11-7
박완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27
서태경 서울 성동구 송정12마길 40(송정동)
이석일 서울 송파구 위례송파로 80(거여동, 레이크파크 호반써밋Ⅱ)

기술: 김성근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아파트)
문정철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00(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3단지)
오승룡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8(일직동, 광명역센트럴자이)
이석희 기술 서울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가락현대아파트)

관리: 이학귀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17(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1단지)
조승필 서울 강남구 도곡로78길 22(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업무: 배성룡 광주 서구 내방로 415(농성동) 마루힐
황귀철 경기 하남시 대청로 119(창우동, 부영아파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영구(보도)
1월 23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81세. 1968년 보도부 입사.
정치부장. 경제부장.
駐LA 특파원, 보도국장.
동경지사장. 보도이사.
마산MBC 사장 등 역임
2008년~2012년
(사)문화방송 사우회장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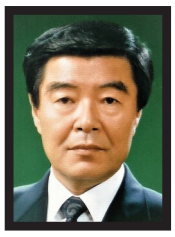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경운(기술)
작년 10월 3일 별세했다는 소식을
금년 1월 10일에 가족이 연락.
향년 78세. 1969년 기술국 입사.
제작기술국, 영상미술국 등 근무.

김형철(보도)
2월 2일 별세. 향년 66세.
1984년 보도국 입사. 뉴스플러스,
시사매거진 부장, 자산개발국 등 근무.
2014년 정년퇴직.

김영효(편제)
2월 14일 별세. 향년 90세.
1961년 부산MBC에서
라디오국으로 입사.
이후 동아방송,
마산MBC, KBS 등에서 근무.

정무웅(기술)
3월 7일 별세. 향년 78세.
1964년 라디오 기술부 입사.
1970년 원주, 삼척MBC 근무.
1997년 강릉MBC 기술국장 역임.

죽음의 문턱에서

이 우 호(보도)

큰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는 것을 실감한다.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날카로은 날을 세우고 숨어있다.

예사로운 결정이 생사를 가르는 경우도 많다. 삶과 죽음은 그렇게 우연히 갈라지는 건지 아니면 저마다 타고난 운명 또는 팔자인지. 나한테 닥친 아찔했던 위기는 필연이라는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연속 위에 있었던 사건일 뿐인가.

1988년 7월, 옌지延吉 시내에 있는 호텔 방. 나는 다큐멘터리 제작팀 동료와 자축의 건배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불과 열흘 동안에 한국에 갖고 가면 깜짝 놀랄 것들을 카메라에 담았다는 기쁨에 들떠있었다. 독립운동가의 자취가 생생하게 남아있던 용정 일대一帶와 가곡 〈선구자〉의 '일송정 푸른 솔'이 있는 자리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생가와 묘소, 백두산 천지 등등. 50분짜리 다큐 두 편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 촬영한 모든 게 특종이었다. 당시는 '중국'이 아니라 수교를 맺기 전인 '중공'이었다. 일반인들의 출입국이 쉽지 않았던 때였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식 입국허가를 어렵게 받아냈고 촬영도 가능했던 거였다. 한국 방송사로서는 중국 땅에 처음 들어간 다큐멘터리 팀이었다.

촬영된 테잎을 다시 확인하며 짐을 꾸리고 있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났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누구지? 예감이 안 좋았다. 문을 살짝 열어본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섬뜩한 빨간 군모를 쓴 중국 공안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조선족 공안이 "동무, 문 여시오"하면서 거칠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목록이 적혀있는 수첩을 꺼내 들고 ENG로 찍은 테잎 뿐 아니라 가정용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비상용 테잎까지 낱낱이 찾아내 압수했다. 우리와 동행했던 현지 가이드가 상세한 촬영상황과 테잎 목록까지 이미 공안당국에 넘겼던 것이다. 공안들이 떠난 뒤 우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후배 기자는 엉엉 울고 있었다.

특종의 기쁨에 들떠있다가 큰 허탈감에 빠진 우리는 베이징行 열차에 올랐다. 자정이 넘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벗어났다. 그런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탓인지 기차표와 여권, 지갑이 든 점퍼를 벗어놓고 간 게 화근이었다. 세 칸이나 지나야 있는 화장실에 거의 다 왔을 때, 건달같은 청년들이 패싸움을 벌였고 열차 공안들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검표가 시작됐다.

기차표를 두고 온 나는 꼼짝없이 무임승차자가 되고 말았다. 동료들이 있는 자리가 멀어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검표원은 다짜고짜 나를 승강구로 몰고 갔다. 그러더니 잠시 정차해 있던 역에 내리라는 손짓을 했다.

사람은 커녕 불빛 한 점 없는 한밤중의 벌판, 역 같지도 않은 역에 내리라는 건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뜻이었다. 버티던 나를 검표원은 난간 계단 아래로 밀쳐내기 시작했고 다시 출발한 열차는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위기일발의 상황, 발끝이 땅을 스칠 정도로 추락 일보 직전이었다. 더구나 그때 열차는 철교에 들어서고 있었다.

아내와 생후 6개월도 안 된 딸아이 얼굴이 어른거렸다. 나는 미친 듯 있는 힘을 다해 영어로 소리를 질렀다,(한 20초는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에 없다. 욕을 좀 섞은 건 분명하다) 발로 짓누르던 검표원이 멈칫하는 기미를 보였고, 그 틈을 타서 조끼 주머니를 뒤져 찾아낸 20달러 지폐 두 장과 한자로 된 명함을 꺼내 흔들며 계속 영어로 소리를 질렀다. 마침내....나는 살았다. 그때 만약 깜깜한 만주 벌판에서 중국 검표원에 의해 추락사하고 말았다면? 국교 수립도 안 됐었고 내 몸엔 신분을 증명할 별 자료도 없으니 열차에서 단순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았을까.

열차 사건으로부터 10년 후 나는 또 한 차례 위기를 겪는다. 1998년 6월, 두 달 전 뉴욕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동료들과 환송모임을 가졌던 날이다. 12시쯤 끝나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차 한 대가 내 앞에 섰다. 이른바 '나라시차'였다. "택시요금만 받을테니 타세요"라며 운전사가 나를 차 안으로 거의 밀어 넣었다. 얼마쯤 가더니 합승을 하는데 세 남자가 뒷자리에 탔다. 뭔가 예감이 안 좋아 '내릴까' 하는데 차는 이미 질주하고 있었다. 논현동 어느 골목길로 기억되는데 뒤에 탄 승객이 내린다며 차를 세웠다.

그러더니 운전사가 내게 말했다. "당신 오늘 잘 못 걸렸어" 결국 모두가 한 패였던 것이다. 머리칼이 쭈뼛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알았어요. 가진 거 다 드릴게" 그런데 순간 그들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 문을 열고 있는 힘껏 뛰었다. 그들이 쫓아왔다. 코너를 돌아 보이는 건물로 무작정 뛰어들었다. 3층으로 올라가니 여관이었다. 다짜고짜 복도 끝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잠시 후 그들이 이 방 저 방 방문을 거칠게 여닫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창을 열고 여차하면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그들이 들이닥쳤다. "이 새끼, 너 오늘 죽었어" 인상이 험악한 자가 칼을 꺼냈다.

잠깐동안 별생각이 한꺼번에 들었다. '운명이 나한테 왜 이러는가' '이제 가족은 못 보는 건가' 등등. 그런데 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칼 든 사내를 막아서더니 내 몸을 뒤졌다. 먼저 지갑을 챙기더니 윗주머니를 뒤져서 나온 방송사 신분증을 보고 순간 멈칫하는 표정이었다. 칼 든 사내가 내 얼굴을 세게 내리쳤다. 그리고 그들은 황급히 떠났다.

집으로 오면서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인가'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걱정할까 봐 아내에게는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당시 상황을 얘기해줬다. 아침이 되자 논현동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연락이 왔다. 화장실에서 빈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했으며, 회사에 물어서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했다. 회사에 출근해서 환송 모임을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 간밤에 겪은 일을 말했더니 '짚이는 데가 있다'고 했다. 우리 좌석 근처에 있던 남자들이 우리를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들의 인상착의가 일치했다. 내가 곧 출국한다는 얘기를 엿들은 그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표적 물색', 당시 여의도에서 벌어지던 범죄의 첫 단계인 셈이다. 그 일을 겪으면서 '호사다마'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다.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따를 수 있으니 늘 조심하라'는 경구警句가 이런 거구나.

사실은 중국 열차 사건 이전에 이미 죽을 뻔한 위기가 한 차례 있었다. 군대에서 조교로 있을 때다. 사격장 감적호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사격종료' 깃발이 올라가 있는데도 훈련병이 난데없이 쏜 총탄에 내 철모가 핑~하고 날아가 버렸다. 1초만 일찍 몸을 일으켰더라면...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니 이 사람은 무슨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험한 일들이 왜 그리 많았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었다.

어쩌다 세상과 마주친 인생이라면 그 아찔했던 순간도 그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타고난 운명이나 팔자라는 게 있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걸 무시할 수만은 없다, 혹시라도 운명의 신이 있어 나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라"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줬다면 감사해야 마땅한 일이다.

돌이켜 본다. 그때 나는 누구였고, 내 목숨을 위협했던 그들은 또 누구였나. 갑자기 닥친 위기를 겪은 뒤 나는 과연 얼마나 단단해진 의지로 치열하게 살아왔었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겪었던 험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젊은 시절에 내 삶에 닥쳤던 위기의 순간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을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인터뷰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이종현(편제) 회원

▶『교양제작TV』라는 유튜브를 제작, 방송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소개해주세요.

작년 12월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PD 생활을 교양제작국에서 시작한 인연도 있고 앞으로 교양적인 콘텐츠를 폭넓게 담아 방송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서 『교양제작TV』라고 이름 지었구요, 현재 방송하고 있는 내용은 "유창영의 그때나 지금이나"입니다.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유창영 선배 PD의 박학다식한 강의를 통해 '역사 속의 많은 일들이 결코 현재와 무관하지 않고 세상일은 돌고 돈다'는 평범한 사실들을 다루면서 시청자와 편안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구요. 초창기라서 아직은 조회 수가 약소하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고 반응도 괜찮아서 기대가 큽니다.

▶MBC에 재직 중 한국인 최초로 국제에미상 심사위원에 위촉됐었는데 에미상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가요?

미국 국제TV예술과학아카데미가 관장하는 국제에미상은 한 해 동안 전 세계(미국은 제외) TV에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입니다. 1999년에 제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국내 최초로 결선까지 진출했지만 아쉽게 수상을 못했었는데 그때 조연출을 했던 유해진PD가 11년 후인 2010년에 만든 〈휴먼다큐 사랑-풀빵 엄마〉가 최초로 에미상 본상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시 책임CP였던 제가 상패를 대신 수상했구요. 그게 인연이 돼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에미상 최종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휴먼다큐 사랑-풀빵 엄마〉의 에미상 본상 수상은 정말 의미가 컸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높였다고 봐야죠. 물론 세계인이 공감하는 '모성母性'을 주제로 삼은 것도 한 요인이었구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큰 상을 받음으로 인해 한국 영상프로그램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한국 콘텐츠로 쏠리게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요즘 세계가 환호하는 K-Culture전성시대를 이뤄내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감히 자부해봅니다.

▶글로벌사업본부에서는 K-POP 공연업무를 담당하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였는데요,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K-POP에 열광했고 그 관심이 한국어와 패션, 음식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 요청이 쇄도하고, 태권도를 배운 외국인들이 마치 성지순례 하듯 우리 국기원을 찾아오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참 뿌듯한 마음으로 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DK KIM KOREA FOUNDATION은 어떤 재단인가요.

재미동포 사업가 김동구 이사장이 세운 재단입니다. 지금은 미국 '공화당 100대 기부자' 중의 한 사람이고, Target, Walmart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미국 유통업계 대부代父이기도 하고, 한 해에 수천만달러의 주문 제품을 생산해내는 사업가로 유명한 분이지만, 9살이 되던 해 육이오를 당해 아버지와 형님들을 잃은 김 이사장은 가난 때문에 대학교도 2년 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던 25살 때 선배의 도움으로 무역업을 시작했는데, 말이 무역업이지 모든 사정이 열악했던 60년대 후반의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해외에서 잘 팔리는 물건의 샘플을 들여와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더 싼 가격에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재료도 귀했던 시절이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끈기와 아이디어, 부지런함으로 서서히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더 큰 세계인 미국으로 가셔서 유통업 분야에서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가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기에 더더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십니다. 그래서 UC버클리대학에 천 만불, USC에 오백 만불의 장학금을 기증했구요, 한국에도 한양대학교 등에 거액의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또 해마다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생 20명을 선발해서 미국에 데려가 8박9일간 '리더십캠프' 참가와 워싱턴 국회의사당 참관 등을 시켜줌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게 꿈을 키워주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국인 캄보디아, 베트남 쪽의 어려움을 마음 아파해서 꾸준하게 의료지원과 문화지원,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콜롬비아에 경제원조모델을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아는 분의 소개로 그분과 만나게 됐는데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해오셔서 능력껏 도움을 드리게 됐고 그러다가 2016년도에 한국 사무실을 만들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업무를 주관하고 있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먼 앞날을 생각해서 오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분의 철학과 비전이 제 소신과 매우 비슷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선' 또는 '봉사'라는 단어와 인연이 많은 것 같군요. MBC에 다닐 때 '탈북청소년 방과후 학교'를 온 가족이 같이 지원했던 적도 있었죠?

네. 2009년 4월에 영어강좌로 시작한 '큰샘'이라는 곳인데요, 탈북청소년을 통일 한국의 소중한 인재로 키우자는 취지로 만든 방과후 학교였습니다. 주말 영어교실과 국영수 강의, 장학금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었죠. 아내는 '큰샘' 영어교실의 프로그램 기획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를 맡았고, 대학생이던 딸 역시 고등학교 시절부터 'Two for One'이라는 남북청소년모임을 주도해왔구요, 저는 재정후원을 맡았었습니다. 이일을 하게된 것은 2001년 '춘향전 남북합동공연'관계로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고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이후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게 됐고, 제 뜻에 공감한 가족들이 함께 활동하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MBC나눔' 대표를 맡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군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나눔' 대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MBC나눔'은 창사 50년을 맞은 MBC가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특화된 나눔 봉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00%(10억원) 출자한 언론사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었죠.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특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했었는데요, 제가 일할 때는 '무한도전' 캘린더를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그 수입이 1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을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밖에 기업협찬을 받기도 해서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교양제작TV』가 잘 돼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 역시 자선사업에 쓰시겠죠?

당연합니다.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김동구 이사장님의 권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분은 사업가라서 저에게도 뭔가 사업을 해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라곤 방송제작 뿐이잖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고 격려해주시고 방송장비 구입 자금도 도와주셔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위안 삼아 제가 좋아하는 방송제작도 하고, 평소의 희망인 '어려운 이웃돕기'도 실천하는 일거양득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우리 가족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우회원 선,후배님들께서도 성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담 편집장)

컴퓨터는 내 친구

안 주 희(ANN)

나는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나 가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네이버블로그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대에 발맞춰 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어림도 없는 것 같다.

신식 SNS(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하지 않으면 웬지 구식 같다.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껏 내가 접했던 어떤 인터넷 매체하고도 성질이 달라서 결국 적응에 실패했다.

이후 SNS에 관심을 잃게 되었고 나의 사이버 세상은 네이버블로그에서 멈춰져 있다.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데도 이메일을 열면 오래도록 소식이 끊겼던 사람의 소식이 페이스북을 타고 들려온다. 이렇듯 한번 인터넷망에 연결되면 알게 모르게 어느 곳인가에 흔적이 남게 된다.

아무튼, 시대에 뒤쳐져 보이던 나의 블로그에서 나는 요즘 고정 수입을 얻고 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이 들어오는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워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네이버블로그를 비교적 초창기에 시작했다. 현재와 같은 온라인 세상의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것이 바로 한국통신의 '하이텔'이다. 지금은 기억도 가물거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단어 '하이텔'. '하이텔'PC통신의 역사는 PC가 가정에 대량으로 보급되는 시기와 맞물리는데 그때 컴퓨터를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PC가 처음 등장할 무렵이다. 그 전까지 컴퓨터라고 하면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형컴퓨터'를 말했다. PC라고 하는 '퍼스널컴퓨터' 즉 개인이 집에서 혼자 사용하는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얼마 되지 않을 때, 나는 서점에서 "PC는 내 친구"라는 책을 한권 샀다.

그 책은 삼성에 근무하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몇 사람들이 PC를 익히며 그 과정을 펴낸 책인데 아주 흥미로웠다.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책을 펴낼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척 고무되었다.

초창기에는 PC를 켜면 까만 바탕에 왼쪽 위에서부터 하얀 타자 글자가 '따다닥~'하고 움직이면서 시작했다. 컴퓨터 운영체제가 '윈도우'가 아닌 '도스'였고 많은 명령어를 알아야했다. " PC는 내 친구"라는 책은 나의 절친이 됐고, 나는 새로운 세상에 열광하고 빠져들었다. 식구 중 누구도 PC와 친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책을 스승으로 삼아 컴퓨터를 배워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PC통신 '하이텔'도 알게 됐다.

영화 '접속'에서처럼 온라인으로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세상을 만난 것이다. 지금은 '와이파이'로 온라인세상이 연결되지만 그땐 전화선으로 연결이 됐었다. 그래서 통신이 연결되면 '뚜뚜뚜...'하며 또 다른 세상과 접선이 된다.

'대화방'이란 걸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신기하던지. '공개대화방'이란 곳엘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말을 한다. "안녕하쎄여~" "안녕하셈" "안뇽" "어쏴(어서와)" 등 지금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말이 짧아지게 된 시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글을 올리지 않으면 내 글은 어느새 저만치 위로 올라가 보이지도 않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나는 온라인으로 세상을 접하는 데 익숙해졌고 '하이텔'에서 '나우누리', '유니텔'을 거쳐 '네이버'에 가상의 집을 갖게 된다. 이 가상의 공간 블로그를 유지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새로운 글도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야 한다.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부지런히 글도 올리고 타인의 블로그도 열심히 구경했다. 여행 다녀온 이야기,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

특히 여행기는 쓰면서도 즐겁고 나중에 그 여행을 되새김하고 싶을 때 읽어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오면서 다시 한 번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에 잠기게 된다. 경험에 의하면, 여행기는 돌아온 즉시 쓰지 않으면 절대 쓰게 되지 않으며 여행기가 없는 여행은 결국은 기억이 흐려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시점이라 '한국천주교성지순례' 책자에 수록된 우리나라 곳곳의 성지순례를 다녔다. 어느 날 친구가 '그것도 기록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블로그에 올리다보니 한동안은 성지순례를 다니려는 사람들로 인해 방문객이 붐볐다. 169군데의 성지순례를 모두 마쳤고 주교님이 주시는 '축복장'도 받았다. 실상 내 네이버블로그는 만들어진지 오래라서 최근 성지순례 글을 올리기 전까진 거의 방치상태였다.

처음엔 열심히 글도 올렸지만, 점점 힘들어져서 내버려 두었는데 내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리는 대가로 얼마를 제시하겠다'는 요청이 몇 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왔다. 블로그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블로거들과는 이미 뭔가 블로그세상의 색깔이 조금 변해버렸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다.

초창기 불로거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개인적인 성격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광고성 글들이 범람하고 있다. 네이버에 뭔가를 검색하면 글이 주르륵 올라오는데 많은 글들이 이런 광고성 글들이고, 정작 블로그의 주인이 자신의 온전한 의지로 올린 글들은 많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들에 꽤 짜증이 나 있어서 내 블로그가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아 무시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나도 이런 블로그 광고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며칠 전, 이제껏 받은 제안과 약간 다른 느낌의 제안을 받았다. 보내온 업체가 일단 믿음이 갔다. 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광고' 카테고리를 새로 만든 다음에 광고는 반드시 그 카테고리에 싣고 그 글이 '광고'임을 명백히 밝히는 조건이라면 응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오케이'했고 계약을 했다. 그렇게 블로그업자가 됐다.

광고란에 글이 올라가는 포스트 껀당 얼마씩 지불되는 것인데, 처음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을 보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어차피 내 블로그에 아는 사람이 찾아드는 시절도 오래 전에 지나갔고 블로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맺던 시절은 이미 흘러갔다. 글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광고가 붙었다는 은근한 자부심이 더 커지는 것을 보면 나도 사람이 변한 것일까. 웃기는 것은, 내 글의 조회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광고는 많이 보는지 광고를 올린 후부터 하루에 조회 수가 200을 넘고 있다. 그런데 이 광고 글을 가만히 보자면 비록 '광고' 카테고리에 있지만 마치 블로그의 주인이 쓴 것 같은 형식을 띄고 있어서 교묘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 "이 글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미 글을 다 읽어버린 터이고 글을 읽기 전에는 모르고 읽는다는 것이다. 저런 문구가 붙어 있는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 글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글을 마무리 지어야할 것 같다. 내가 인터넷 세상에 발을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터넷 세상으로부터 어떤 수입을 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냥 취미와 흥미로 시작하여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다. 오래하다 보면 혹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금방 실적이 생기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초조해 하지 않으면 좋겠다.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뭐가 됐든 결과물이 생기니까. 블로그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도 취소해야겠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고 카톡을 한다. '카카오스토리'를 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카카오스토리의 매커니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 그것도 이용을 못한다. 그러나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내 블로그에 들어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 알았다.

이제 꼭 PC를 켜지 않아도 폰을 통해서도 내 블로그에 들어갈 수가 있고, 블로그로 인해 수입도 창출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그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정도는 되지 않는가 자위해 본다. 온라인 세상에 대해 내가 만든 격언은 이렇다.

『오프라인 없는 온라인은 공허하며, 사이버 세상은 사이비似而非세상과 한 끗 차이다』

참고로 나의 네이버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pinoccio다.

‘한글 개명 파동’ 이야기

오 명 환(편제)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한창 기세등등하던 1975년쯤. 방송사는 정부의 뜬금없는 ‘질책’에 당황했다. “우리글, 우리 말을 선도해야 할 방송이 어찌하여 외국어 일색이냐, 프로그램 이름부터 영어 표기가 대부분이고, 외국 가요는 원어로 난무하고, 연예인의 예명도 서양 이름을 쓰고 있는데 어찌 매스컴이 이를 묵과하고 동조해왔는가”라는 취지였다.

배경에는 한글학자 최현배의 뜻을 이어받은 한글학회가 있었다. ‘한글 파괴, 외국어 표기 범람’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한글학회는 정부에 ‘한글 사용’을 강력하게 제안했고, 이것은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여 연예인 이름부터 한글로 환원하고 프로그램 이름도 한글로 고치라는 ‘권유’가 내려왔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권유’지 명령이자 강제였다. 아연실색 당황한 곳은 가수 집단이었다. 영어로 표기한 가수들의 예명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다.

방송사는 연예인들에게 한글 이름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방송 출연을 보장할 수 없으며 향후 연예활동에 따르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적시했다. 가장 먼저 순順반응을 보인 가수는 귀요미 쌍둥이 자매 ‘바니걸스’였는데, 직역한 이름 ‘토끼소녀’로 개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와일드캐츠’가 ‘들고양이’로 불러달라고 화답했다. 검은 점퍼와 판탈롱 스타일에 고풍의 댄스리듬을 실은 히트곡 ‘마음 약해서’는 당시 인기 최고였다. 다음으로 남성 듀엣 ‘어니언스’가 ‘양파들’로 개명했다. ‘야상곡’의 뜻을 가진 ‘세레나데’를 예명화 했던 김세레나는 절묘한 한글이름을 내놓았다. ‘레’자만 빼고 ‘김세나’로 둔갑했다. ‘위키리’는 본명 ‘이한필’로 바꿨고, 배우 ‘트위스트 김’도 본명 ‘김한섭’을 선언했다. 본명을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 것이다. ‘후라이보이’도 본명 ‘곽규석’으로 돌아왔다. 공군 출신인 그는 ‘날으는 사나이’의 뜻으로 예명 ’Fly Boy‘를 썼었는데, 당시 ’후라이‘는 ’허풍쟁이‘라는 뜻도 있었다. 코미디언 ’쓰리보이‘ 또한 본명 ’신선삼‘으로 바꿨다. 이필원과 박인희의 남녀혼성 ’뚜아에무와‘는 영어 아닌 불어 이름이었는데 직역한 ’너와 나‘로 전환했다.

펄시스터즈

못내 망설이는 가수들도 많았다. 듀엣 ’투코리언스‘, ’펄시스터즈‘, 쿨시스터즈’, ‘李시스터즈’, ‘트윈폴리오’와 4인조 그룹 ‘쟈니브러더스’, ‘히식스’ 등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예명으로 굳혀진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으리라. 이들 중 “커피 한 잔‘과 ’님아‘로 폭발한 Rock풍의 듀엣 ‘펄시스터즈’는 때마침 동아건설 최원석 사장과 결혼한 언니 배인순의 은퇴로 자연 해체됐고, ‘하얀 손수건’을 노래한 트윈폴리오의 송창식과 윤형주도 그 전에 각각 솔로로 흩어졌다.

마침내 ‘벽오동’으로 유명한 김도향과 손창철의 ‘투코리언스’ 는 ‘창철과 도향’으로 바꿨다가 얼마 안 가 해체됐고 ‘李시스터즈’는 ‘李자매들’로, ‘쿨시스터스’는 ‘도토리자매’로 개명했다. ‘뜨거운 안녕’의 ‘쟈니리’와 모델 가수 ‘루비나’, ‘리타김’ 등은 본명을 내놓았지만 이후 활동이 뜸해지면서 세간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따지고 보면 원로 가수 ‘신카나리아’(본명 신경여)는 외국어 이름의 원조 격이었다. 목소리가 고운 새鳥 ‘카나리아’에서 따온 이름이었다는데, 흘러간 가수로 TV에 가끔 모습을 보이다가 2006년 94세로 별세했다.

이러한 조치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가수는 ‘패티 김’이었다. 주위에서 본명인 ‘김혜자’로 바꿀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본명도 다른 이름도 완강하게 거부했다. 당시 36세의 대형가수 패티 김은 1959년 미8군 무대로 데뷔하면서 한,미간에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다. 그녀는 당시 유명한 여가수 ‘페티 페이지’와 지성파 여배우 ‘수전 헤이워드’, 섹스 심벌 ‘에바 가드너’를 놓고 생각을 거듭한 끝에 ‘페티 김’을 선택했었다. 그런 만큼 그녀는 그 이름을 좋아했고 이름을 바꾼다는 생각 따위는 해본 적도 없었고, 방송 출연에 연연하지도 않았다. 또 한 사람은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었다. 본명은 ‘김봉남’이지만 그 역시 ‘한글 개명’을 단칼에 거부했다. 그는 평소 패션 본 고장인 프랑스 이미지를 앞세웠고, 외국 대사 부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글로벌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본명 사용은 오히려 자신의 마케팅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패티 김’이 그러했듯 ‘앙드레 김’ 또한 이름은 그들의 브랜드였고 목숨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글학회는 한술 더 떴다. 외래어로 이미 정착된 ‘라디오’는 ‘소리통’으로, TV는 ‘그림통’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인기 프로그램인 〈쇼쇼쇼〉, 〈게임쇼〉, 〈골든쇼〉, 〈데이트 쇼〉, 〈모닝 쇼〉, 〈퀴즈 쇼〉, 〈코미디 쇼〉, 〈힛퍼레이드〉등이 문제가 됐다. 예능국은 속칭 ‘쇼 파트’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굳이 ‘쇼’를 번역하자면 ‘무대’ 또는 ‘향연’이 될 테니 〈코미디 쇼〉는 〈웃음 무대〉, 〈데이트 쇼〉는 〈쌍쌍 무대〉, 〈게임 쇼〉는 〈놀이의 향연〉, 〈힛퍼레이드〉는 〈인기 가요 모음〉 쯤이 될 것이었다.

방송사는 주무 관청인 문화공보부를 통해 정부에 통 사정을 했다.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외래어 사용은 어쩔 수 없으니 대신 앞으로 외국어 표기를 최대한 절제하겠다고 읍소했다.

〈살짜기 웃어예〉, 〈토요일토요일 밤에〉, 〈가요 대행진〉, 〈화요일에 만나요〉, 〈인간 만세〉, 〈터놓고 말합시다〉같은 우리 말로 된 제목들이 잇달아 나왔다. 한글 이름에 대한 압박은 방송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이화여자대학교’를 ‘배꽃 계집 큰 배움터’로, ‘숙명여자대학교’를 ‘맑고 밝은 여자 큰 배움터’로 바꾸지 그러냐 하는 비아냥도 들렸다. 그렇게 되면 ‘동국대학교’는 ‘동쪽나라 큰 배움터’, ‘단국대학교’는 ‘단군나라 배움터’, ‘중앙대학교’는 ‘한 가운데 배움터’로 바뀌어야 할 것이었다.

해태와 롯데에 이어 등장한 유乳제품 메이커였던 ‘퍼모스트’는 차제에 ‘빙그레’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했다. 대기업인 ‘선경’이 SK로, ‘럭키금성’이 LG로, ‘한국통신’이 KT로 오히려 ‘한글 개명’과 역행하는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치르면서 한국은 세계화, 국제화로 치닫고, 오늘날 정보통신의 엄청난 발달과 이로 인한 글로벌화, 네트웍화가 진행되면서 ‘한글 전용’이라는 단어는 어느 틈엔가 옛 유물이 됐다. 47년 전에 벌어진 한바탕의 〈한글 전용 국어 쓰기 파동〉 또한 한낱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가 됐다.

예명 ‘걸스데이’, ‘엑소’, ‘트와이스’, ‘ H.O.T’, ‘A.O.A’, ‘빅뱅’, ‘원더걸스’ 등의 연예인 이름과, ‘코미디 빅리그’, ‘싱어게인’, ‘팬텀싱어즈’, ‘생방송 투데이’, ‘인생 토크쇼 터닝포인트’, ‘KBS네트웍 백투더뮤직’ 등의 프로그램 이름, 수많은 영어 제목의 노래 등에게 다시 이런 ‘한글 파동’이 온다면 어떻게 고쳐 쓸 것인지 못내 궁금하다.

북리뷰

〈말투 연습을 시작합니다〉 신경원 지음

조 정 선(편제)

고 백 하 건 대 , PD시절 음반 홍보를 다니는 매니저들에게 참 못되게 대했다. '별이 빛나는 밤'이나 '주병진,노사연의 백분쇼'같은 프로그램의 연출자로 있으면서 교만이 극에 달했다. 그네들이 건넨 새 음반을 모니터링하고 막말을 쏟았다.

"이건 함량미달이다" "절대 히트 못 한다" "가요계의 민폐다"등등.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몇 개월 아니 그 이상 시간을 들여 빚어낸 것임에도 겨우 1~2분 들어보고 얄팍한 경험에 의지해서 '되겠다'느니 '안 되겠다'느니. 참으로 낯 뜨거운 짓을 많이 했었다.

나와 눈을 마주친 매니저가 으레 하는 인사로 "식사하셨습니까?"하면 "지금이 몇 신데 아무 때나 밥을 먹어요?"했고 "PD님이랑 같은 방향인데 태워드릴까요?"하면 "싫어요, 전철로 갑니다" 그런 식이었다. 한마디로 인정머리 없고 재수까지 없는 꼴불견이었다.

가끔 배철수 형이 한마디 했다. "좀 친절하게 대해라. 방송국이 너만의 회사가 아니라 걔네들의 일터이기도 하잖아" 맞는 말인데 입을 쌜쭉거렸다. 속으로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

퇴직 이후 나름 인생의 후반기를 연착륙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 업무상(혹은 그냥 스쳐 지났더라도) 만났던 이들에게 내가 두루 친절했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지 모른다.

저번에 OB들과 만나서 일하며 아쉬웠던 일, 후회되는 일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려운 사람을 잘 챙겨주지 못했던 것, 그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걸 고백했다. 친절이란 과연 뭔가 생각해 본다. 무엇보다 친절은 '상냥하고 배려가 있는 말투'일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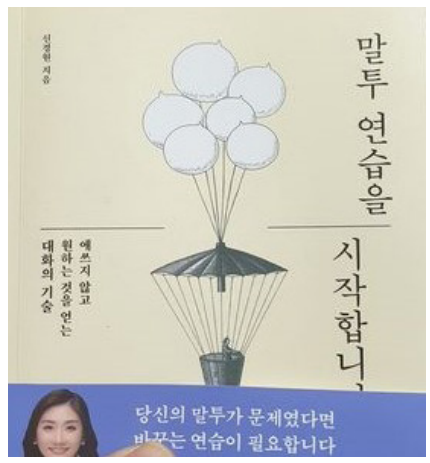
이벤트 기획 겸 홍보 전문가 '신경원'이 쓴 '말투 연습을 시작합니다'라는 책을 읽었다. 세상에 "나는 내 성격이 참 좋아! 고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다. "나는 그런 성격이 못돼서 말이야. 그 사람이 부럽다" 흔히들 하는 얘기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나쁜 성격을 바로잡을 팁을 바로 깨닫게 됐다.

그건 다름 아닌 '말투를 친절하게 고치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그동안 사용해온 말투를 어찌 다 전면 수정 모드로 돌입하겠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바꿔도 효과는 나타난단다.

"'그런데'는 반감의 단어다. '그런데'로 시작하면 상대방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심기를 자꾸 건드리게 된다. '그런데'는 갈등을 더 크게 부풀리는 이스트 역할을 한다. '그리고'는 수용의 단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를 '그리고'로 바꾸기만 해도 다음 말들의 내용이 달라지고, 어느새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등 책에는 수많은 예시들이 나와 있다. '해서는 안 될 말들'과 그걸 대체할 바람직한 표현들이 수험생의 문제풀이처럼 보기 좋게 나열돼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내 어법은 '해서는 안 될 말들'에 기울어져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한다.

20여 년 전, 나름 잘 나가던 PD 시절에 그걸 깨달았더라면...조금만 겸손했더라면...."식사하셨습니까?" 물으면 그게 어느 때이건 "네, 잘 먹었지요. 홍보하느라 바빠도 챙겨드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고, "저희가 낸 새 음반 들어보시고 어떠셨어요?" "네, 아주 열심히 만드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요PD를 오래 해도 히트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됐던 거다. 그게 어려웠나?



한 가지만 더 쓰고 리뷰를 마무리한다. 남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자! "넌 몰라도 돼"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넌 말해도 몰라. 그런 게 있어" "결론이 뭐냐고" 다 읽은 분 중에 내게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을까? "뭐 길게만 썼지, 내용이 없네"

가요PD 시절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한 응보로 알고 감내하겠습니다.